

TV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 TV schedule table listing programs like '세기의 눈', '미술품합체', '정글북'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 플러스1 and 플러스2 schedule tables listing various educational and cultural program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Fortune telling section) with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horoscopes.

“오로라공주’ 하차 섭섭... 새로운 기회 찾아 다행”



박영규, KBS 새 사극 '정도전' 이인임 역 캐스팅

배우 박영규(60)는 짧은 시절 '한국의 클라크 게이블'로 불렸다. 그러나 그는 클라크 게이블처럼 신사 같은 이미지에도 틀에 얽매이지 않는 넓은 연기 보폭을 보였다. 그간 시트콤 '순풍 산부인과'의 코믹한 '미달이 아빠'부터 사극 '해신'의 카리스마 있는 거상, 드라마 '백년의 유산' 속 '꽃 중년'까지 역할마다 '내 것'으로 흡수하는 내공을 보여줬다. 이러한 '연기 9단' 박영규에게 최근 속삭한 사건이 하나 있었다. 지난 7월 MBC 일일극 '오로라공주'에서 갑작스럽게 하차한 것. 손창민, 오대규가 제작진으로부터 일방적인 하차 통보를 받은 데 이어 주인공 오로라의 큰 오빠로 출연한 박영규도 극 중 미국행을 택하며 브라운관에서 사라졌다. 최근 을지로서에서 인터뷰한 박영규는 당시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1년 전부터 제의를 받아 수차례 고사한 끝에 결정된 작품이었어요. 그럼에도 상대를 배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처사에 처음엔 섭섭하고 황당했죠. 지금껏 그런 마음으로 연기한 배우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죠. 제작진이 출연진과 짝은 계약서도 의미가 없더군요." 그는 "배우는 드라마를 준비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다른 작품을 거절하니 기회비용도 생긴다"며 "나름의 철학을 갖고 한해 농사를 지으려 했는데 가을걷이가 막살 났다. 차후 후배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마음을 정리했다. 상대를 원망하기 전에 그 작품을 결정할 것도 자신이었다. '내 탓'이라고 여겼고 인생에 약이 됐다고 결론 내리자 '새옹지마'처럼 좋은 일이 찾아왔다. 그는 내년 1월4일 첫 방송될 KBS 1TV 대하사극 '정도전'(가제)에서 정도전과 대립각을 세우는 '정치 9단' 이인임 역에 캐스팅됐다. 사극은 2004년 KBS 2TV '해신' 이후 10년 만이다. '정도전'에는 조재현(정도전 역), 유동근(이성계), 임동진(최영) 등 걸출한 배우들이 대거 캐스팅됐다. 박영규는 모처럼 연기를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며 '결결' 웃었다. 캐리커가 무척 마음에 들어 연기라는 게 어떤 것인지 보여줄 기회인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필요한 시점에 이런 작품이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리가 좋고 정치적인 이인임은 정도전과 대립하며 극 중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주요 인물이 모두 거쳐 갈 정도로 인パクト 있는 역할이에요. 허술한 악역이 아닌 만큼 어깨가 무거워졌죠." 그는 연기와 사업을 병행하면서 자신이 축적되던 영화 제작을 해보고 싶다는 꿈을 밝혔다. "한국재능화제에 출품할 수 있는 영화를 제작하는 게 꿈이에요. 자신이 축적되면 재해 보고 싶은 영화로 해외 시상식 레드 카펫을 밟아보고 싶어요." 시련도 있었다. 지난 2004년 3월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것. 그는 당시 경황이 없었는데 10년이 지나 정신이 드니 아들이 더욱 보고 싶다고 했다. /연협뉴스

KBS광주, 특집 '대안교육 15년...' 내일 방영

미인가 대안학교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모색

미인가 대안학교와 대안교육의 현실을 짚어보는 특집 프로그램이 방송된다. KBS광주방송총국은 9일 밤 10시부터 50분 동안 KBS 1TV를 통해 '대안교육 15년, 다시 대안을 묻다'(연출 윤영희 기자)를 방송한다. 교육부가 최근 "미인가 대안학교의 한 해 교육비가 수천만 원에 이른다"는 보도자료를 내 놓으면서 이런 인식을 강화시킨 측면도 있다. 그러나 실제 미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미인가라는 이유만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해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문을 닫거나 교사와 학부모 모두 대안 교육이 기존 교육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공감한다. 하지만 현재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은 귀족학교라는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다. 교육부가 최근 "미인가 대안학교의 한 해 교육비가 수천만 원에 이른다"는 보도자료를 내 놓으면서 이런 인식을 강화시킨 측면도 있다. 그러나 실제 미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미인가라는 이유만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해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문을 닫거나 교사와 학부모



TV 하이라이트 (TV Highlights) section featuring articles on '특량만의 소박한 삶 이야기' (A story of simple life in a special region), '유전자 검사가 주목받는 이유' (Why genetic testing is gaining attention), and '아픈 두 아들을 향한 父情' (A father's love for two sick children).